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1. 12. 21.(화)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항만개발과	담당 자	• 과장 이상호, 사무관 김기현, 주무관 김하림 • ☎ (044)200-5930, 5937, 5938	
보도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대산항,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한걸음 더

- 관리부두 준공으로 관공선 및 역무선 추가 수용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대산항이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를 12월 21일(화)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 (사업규모) 부잔교 시설(함선) 4기, 외곽시설 310m 등

대산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유류화물 물동량이 3위*(‘20년 기준)인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 거점 항만이다. 최근 유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돌핀 등 계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선박의 접·이안을 위한 예선과 도선, 그리고 관공선 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운항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접안시설이 부족해 관공선 등이 제때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선박 통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20년 기준) 1위 울산항, 2위 광양항, 3위 대산항

** (‘14년) 54척(관공선 7척, 예선·도선 47척) → (‘20년) 64척(관공선 7척, 예선·도선 57척)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3월부터 총사업비 418억 원을 투입하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돌입했고, 조위에 관계없이 관공선 및 역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잔교 4기*를 설치해 접안시설 320m를 추가 확보하였다. 또한, 기상이 악화될 경우 항내에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방파제 310m도 건설하였다.

* 최대 관공선 1,000톤급, 역무선 400톤급 접안 가능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완공으로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 대산항의 항만 운영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산항의 부족한 항만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접안시설 증가에 따른 관공선 및 예·도선 등의 역무선 증가로 추가 수용 및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한 관리부두 축조
- (사업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대산항 전면해상
- (사업규모) 외곽시설 310m, 부잔교 4기, 준설 등
- (사업기간/사업비) '17. 3. ~ '21. 12. / 418억 원

□ 조감도



참고 2

대산항 관리부두 사진

